

스웨덴 기업 임원들 "한국기업 배울래요"

삼성·현대차 방문

기사입력 2013.11.04 17:39:52

보내기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고위경영자 과정(EMBA) 졸업생들이 4일 신촌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다. <이승환 기자>

"글로벌 경기가 침체됐지만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높은 벤처 창업률과 수많은 다국적 회사로 상징되는 `기업 천국` 스웨덴 경영인들이 한국 대학과 기업 현장을 방문해 벤치마킹에 나선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요청으로 이 학교 고위경영자과정(EMBA) 졸업생이자 스웨덴 주요 기업의 현직 대표·중역들을 위해 3일부터 10일까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코리아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북유럽 최대 해운회사 스테나 임원 5명을 포함해 기술 자문, 광고, 헤드헌팅회사 대표 등 총 9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삼성엔지니어링 본사 등 기업 현장도 방문한다.

스테나 임원은 "스테나는 가족이 운영하는 대기업인데 한국의 대기업 문화와 비교분석해

보면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삼성에서 전자계열사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우리는 삼성의 시스템 설비기술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한기간 연세대 경영대 교수들로부터 한국의 경영문화, 금융시장, 마케팅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대학교 간에 통상적인 학생 교류는 있었지만 졸업생이자 현직 기업가를 대상으로 정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장은 "한국 기업 환경을 이해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 방향을 모색하고 싶다고 예테보리대학 측에서 먼저 문의를 해왔다"며 "지금은 일회성이지만 쌍방향 정기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경영대학원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이어주는 실질적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현 기자]